

경관풍수에 의한 전원주택의 입지선정: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육한석¹ · 박우평²

강원대학교 교수¹ ·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품개발 차장²

1. 서론

1980년대 초반 개별형 전원주택이 출현한 이후 1990년대 단지형 전형주택이 공급되어 전원주택형의 주거 생활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것은 도시생활 양식에서 전원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를 벗어나 주거를 옮기는 과정, 이른바 도시 탈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양호한 자연환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구동회,1999). 이 연구는 전원주택의 출현을 우리 사회의 주거 추세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전원주택이 과연 어떤 곳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 부근 북한강 유역 부근에 단지형 전원주택이 조성되고 분양될 때 수려한 자연경관이 입지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지만 주로 수변경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때문에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수려한 자연 경관이란 요인을 우리의 선조들이 강조한 풍수지리적인 요인으로 대체하여 전원 주택 입지 선정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태양에너지와 순환하는 물, 그리고 이 순환을 담아내는 땅에 지기가 모이게 되고(한동환, 1998) 그곳에 살게 되면 거주자가 활력과 생명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생각이 풍수지리라면 전원주택의 입지 선정도 풍수지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주택이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민의 도시 탈출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에 활력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여 그곳에 도시민이 살게 되면 그들은 전원생활에서 풍수지리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이러한 욕구가 더욱 크질 것이 자명하므로 도시민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전원주택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한강축(양평, 광주, 남양주, 가평), 접근성이 양호한 고속도로축(용인, 분당), 그리고 일산신도시에서 파주로 나아가는 북방축(고양, 파주)이 수도권 전원주택의 집중적인 성장축이다(구동회, 1999).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이 연구는 한강축(남양주, 가평)의 북한강 유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강축은 한강이라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득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득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기가 넘치는 곳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강 유역에서 단지형 주택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강 유역의 풍수지리적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강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하폭이 넓으며 유량도 많아 한편으로는 득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 일급 명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득수가 지나쳐 습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수에 불리하고 깊은 하곡이 장풍에 불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1) 경관 풍수에 의한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다음 (2) 북한강 유역 일대의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개관, 그 특징을 먼저 알아보며 (3) 끝으로 단지형 전원주택 가능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하여 논평하고자 한다. 전원주택의 입지를 선정할 때 그것이 개별형 전원주택자인가 단지형 전원주택자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단지형 전원주택지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

며 2-10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북한강 유역 부근 일대 중에서 이 연구는 행정구역 상으로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군 일부, 양평군 일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지역의 1:250,000, 1:50,000 지형도 분석과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년간의 야외답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야외답사에서 풍수지리적인 요소가 고려된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그곳의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기술하며, 나아가 현대주택의 입지 선정 요인과 비교하여 풍수지리적으로 입지 선정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2. 경관풍수와 그의 적용기준

1) 경관풍수에 의한 선정 기준

풍수지리에 의한 북한강 유역 일대의 전원주택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 수, 방위가 풍수지리의 3대 요소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 수, 방위의 3대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경관 상의 특징이 바로 풍수지리적 특징이며 이를 경관풍수라고 한다. 경관 상에 이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명당이다. 경관풍수에 의하면 명당은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균형성, 조화성의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옥한석, 2003)

이들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명당의 등급이 결정되므로 산계와 수계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즉 풍수지리 용어로 일정한 국 내에서 산, 수, 방위로 이루어진 5가지의 특징이 여러 곳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에 최상급이 명당이 된다.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10개 질문으로 표현된다.

- ①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을 이루어내는 산줄기가 3겹 이상 펼쳐지는가?(안산과 조산)
- ②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구가 막혀있는가?(물길과 수구)
- ③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필봉)
- ④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의 간격이 어떠한가?(짜임새)
- ⑤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좌우대칭적인 방향은 어떠한가?(정향)
- ⑥ 뒤를 보았을 때 조산에서 주산, 주산에서 특정 사이트까지 산줄기의 흐름이 뚜렷한가?(용의 흐름과 입수)
- ⑦ 특정 사이트에서 뒤를 보았을 때 주산이 뚜렷하고 안정적인가?(주산)
- ⑧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좌우 양쪽에 있는가?(좌청룡, 우백호)
- ⑨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기복을 보이는가?(장풍)
- ⑩ 특정 사이트는 밥공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안정된 모습이며 토질이 좋은가?(혈처의 모습)

이와 같은 10가지 질문 중 일부에 대하여 택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히고 그 안쪽으로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하여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을 가릴 것 없이, 힘있게 거슬러 흐르는 물이 판국을 가로막았으면 길하다. 한 겹이라도 참 좋지만 세 겹이나 다섯 겹으로 감싸지면 더욱 실하다. 하늘의 빛이 막히지 않고 수기가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한 것이 으뜸이다.

무릇 물이 없는 곳은 자연히 살 곳이 못된다. 산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뒤에야 바야흐로 생성하는 묘미를 다할 수 있다. 무릇 조산에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다든지, 혹은 무너지거나 떨어져 나간 모양이 있든지, 혹은 엷보거나 넘보는 모양이 있든지, 혹은 이상한 돌과 괴이한 바위가 산 위어나 산아래 보이든지...하면 모두 살 곳이 못된다. 조수는 물 건너 물을 말한다. 작은 냇물이나 작은 개울물은 거슬러 흘러드는 것이 길하지만 큰 냇물이나 큰 강물은 거슬러 흘러드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택리지가 산세가 이루어낸 일정한 국내에서의 풍수지리적인 5가지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10가지 질문에 따라 특정 장소를 선정,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전원주택의 입지 선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경관풍수에 의한 전원주택의 입지선정 기준

산세가 이루어낸 일정한 국내에서 앞에서 말한 풍수지리적인 5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곳이 명당이다. 이러한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명당이 드물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완화하여 전원주택의 입지를 선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10가지 기준 중에서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대칭적 방향은 어떠한가?’라는 기준에 대하여 전원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뿐이다. 바로 전원주택지는 남향(남서향, 남동향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택의 경우는 방향이 전방위이지만 양택의 경우는 남향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앞서 말한 10가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다.

- ①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방향이 남향(남향,남서향, 남동향)인가?
- ②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구가 막혀있는가? (물길과 수구)
- ③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이나 조산 줄기가 사이트를 에워싸며 나타나는가? (안산과 조산, 들)
- ④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 (산모습)
- ⑤ 특정 사이트는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건설할 만큼 넓으며 안정적인가?(택지의 규모, 안정성)
- ⑥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나타나며 주산이 안정적인가? (장풍)

이와 같은 ①남향 ② 물길과 수구 ③ 안산과 조산, 들 ④ 산모습 ⑤택지의 규모 ⑥ 장풍의 특징을 전원주택의 입지 선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여섯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곳을 전원주택지로 선정하였다.

3. 북한강 유역 일대의 풍수지리적 평가와 전원주택지 사례연구

1) 국별 풍수지리적 개관과 평가

북한강 본류 이외의 8개의 계곡 일대가 각각 풍수지리적인 조건과 단지형 전원주택지 조성에 적합한지를 1:50,000 지형도 상에서 살펴보자.

①조종천 계곡은 연구지역 내에서 제일 넓은 유역분지를 이루며 다수의 지류가 형성되어 득수가 가능하다. 명지산, 청계산, 운악산, 주금산에서 흘러나온 작은 지류들이 현리 부근에서 합수한다. 신하리 하곡에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선정하기에 좋은 다수의 넓은 평지가 전개되며 남향의 주택단지

를 선정하기에도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산을 찾기 어렵고 주산 아래 전개되는 안정된 택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②상천계곡의 외서면은 46번 국도와 경춘선 철로를 따라 좁은 협곡이 전개되어 득수에 불리하지만 청평읍 부근에서 서남방향으로 곡류하고 북한강 본류와 합류하므로 득수에 유리하다. 북한강 본류를 따라 단지형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본류 맞은편 계곡에서 불어오는 곡풍과 계곡풍이 장풍과 득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③수동천 계곡은 조종천 계곡 다음으로 유역분지가 넓다. 주금산, 축령산, 천마산 등에서 흘러내린 소지류가 좁은 협곡을 형성하므로 안산과 조산이 펼쳐지기 어렵다. 입석리가 가능하다.

④화도천 계곡은 송라산, 백봉, 문안산으로 둘러싸인 화도읍은 두 개의 지류에 의한 유역분지로 구성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는 이미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하여 전원주택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금대리에서 북한강 본류로 유입하는 금대리 일대에서 안산과 조산이 나타나며 장풍과 득수가 가능하다.

⑤설악천 계곡, 이른바 설악면은 북한강 본류로 유입하는 설악천이 북류하게 되므로 남향의 전원주택단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북향인 경우는 득수와 장풍이 가능하다.

⑥벽계천·문호천 계곡은 조종천, 수동천 계곡만큼 넓은 유역분지를 이루고 있지만 양 하천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 본류에 유입되므로 남향으로는 득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앞산이 높아 천옥을 이루게 된다.

⑦조안천 계곡, 양서천 계곡 하천이 각각 남동방향, 남서방향으로 흘러 북한강 본류와 만나므로 합류지점 끝에 남향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볼만하다. 이들 유역분지들의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선정된 전원주택지 사례연구

전원주택의 선정 기준으로 ①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방향이 남향(남향,남서향,남동향)인가?, ②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구가 막히었는가? (물길과 수구) ③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이나 조산 줄기가 사이트를 에워싸며 나타나는가? (안산과 조산, 들) ④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 (산모습), ⑤ 특정 사이트는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건설할 만큼 넓으며 안정적인가?(택지의 규모, 안정성), ⑥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나타나며 주산이 안정적인가?(장풍)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전원주택 선정지로서 9곳이 선정되었다. 이들 8곳은 두번째 기준인 물길과 수구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I유형은 조산 너머 북한강 본류가 득수가 되는 형으로 양서면 재미마을, 외서면 사기막, 외서면 큰골, 조안면 송신, 조안면 중리 등이며, II유형은 안산 또는 조산 너머 소하천이 득수가 되는 형으로 서종면 내수입, 설악면 뽕나무거리 등이다. 마지막 III유형은 조산 너머 북한강 본류가 역수를 이루면서 득수가 되는 형으로 양서면 용담마을, 외서면 구청평내 등이다.

(1) I 유형

- 양서면 재미마을
- 외서면 사기막
- 외서면 큰골
- 조안면 송신
- 조안면 중리

(2) II 유형

- 서종면 내수입
- 설악면 뽕나무거리

표 1 선정된 전원주택지의 풍수지리적인 특징

구분	방향	물길과 수구	조산과 들	산모습	규모와 안정성	주산의 안정성
개미마을	남서향	명당수가 아주 적으며 수구가 닫혀있다	들이 아주 좁다	복잡하다	협소하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사기막	남서향	명당수가 적으며 수구가 다소 열려있다	들이 좁다	단조롭다	넓으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큰골	남서향	명당수가 크며 수구가 다소 열려있다.	들이 좁다	단조롭다	협소하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송신	남동향	명당수가 적으며 수구가 닫혀 있다	들이 넓다	단조롭다	협소하며 불안정적이다	희미하다
중리	남동향	명당수가 작으며 수구가 다소 열려 있다.	들이 넓다	단조롭다	협소하며 안정적이다	뚜렷하다
내수입	남향	명당수가 크며 수구가 닫혀있다.	들이 아주 좁다	복잡하다	협소하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뽕나무거리	남서향	명당수가 아주 적으며 수구가 닫혀 있다.	들이 아주 좁다	복잡하다	넓으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용담마을	남향	명당수가 크며 구구가 닫혀 있다.	들이 넓다	복잡하다	협소하며 안정적이다	희미하다
구청평내	남향	명당수가 없다.	들이 없다	단조롭다	협소하며 불안정적이다	희미하다

(3) III 유형

- 양서면 용담마을
- 외서면 구청평내

4.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한강축(양평, 광주, 남양주, 가평)에 전원주택형의 주거 생활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연구는 (1) 경관 풍수에 의한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다음 (2) 북한강 유역 일대(남양주, 가평)의 풍수지리적인 특징을 개관, 그 특징을 알아보고 (3) 단지형 전원주택 가능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하여 논평하고자 하였다. 수려한 자연 경관이란 전원 주택 입지 요인을 우리의 선조들이 강조한 풍수지리적인 요인으로 대체하여 그의 입지 선정에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연구 지역 일대의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 수, 방위의 3대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경관 상의 특징이

바로 풍수지리적 특징이며 이를 경관풍수라고 하는데, 경관 상 이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명당에는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균형성, 조화성의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며 이는 10개의 선정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입지 선정에는 이들 10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어렵다. 그래서 ①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방향이 남향(남향,남서향, 남동향)인가? ②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구가 막혀있는가? (물길과 수구) ③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이나 조산 줄기가 사이트를 에워싸며 나타나는가? (안산과 조산, 들) ④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다 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 (산모습) ⑤ 특정 사이트는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건설할 만큼 넓으며 안정적인가?(택지의 규모, 안정성) ⑥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나타나며 주산이 안정적인가?(장풍)의 6가지 기준을 전원주택 입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전원주택 선정지로서 9곳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물길과 수구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양서면 게이마을, 외서면 사기막, 외서면 큰골, 조안면 송신, 조안면 중리 등은 조산 너머 북한강 본류가 득수가 되는 형이며, 서종면 내수입, 설악면 뽕나무거리 등은 안산 또는 조산 너머 소하천이 득수가 되는 형이다. 양서면 용담마을, 외서면 구청평내 등은 조산 너머 북한강 본류가 역수를 이루면서 득수가 되는 형이다.

경관풍수의 입지선정 요인을 적용한 이러한 연구는 최근 풍수이론을 활용한 정원설계 기법개발이나 풍수의 현대적 해석(백미나, 2001)과 주거 공간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은덕수,2001)와 함께 풍수의 현대적인 적용에 앞으로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동희, 1999, 전원주택의 출현과 입지 선정, 대한지리학회지, 제34권 제2호, 193-208.
육한석, 2003, 안동의 풍수경관 연구: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1호, 70-86.
한동환·성동환·최원석, 1994, 자연을 읽는 지혜:우리 땅 풍수 기행, 푸른나무, 서울
백미나, 2001, 풍수이론을 활용한 정원설계 기법개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은덕수, 2001, 풍수의 현대적 해석과 주거 공간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